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여름 특집

이웃돕는 생활이 수행”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잘못은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데서 비롯돼요”

한 자비심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를 고요시킬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가져오는 좋은 결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전하는 정신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두번째 명상의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정신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과 고귀함

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덧없고 일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뛰어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튼튼한 집을 지어 놓고도 그 안에 아주 사소한 것들만 갖다 채우는 토끼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삶에 대해 세속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을 해야 하고, 먼저 어렵게 지위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육신의 고귀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해지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본성이 조금만 실현되어도 지금 생에서 추구하는 표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에 대한 환상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이 가진 괴할 수 없는 법칙과 윤회가 가지는 불만스러운 본성에 대해 반복해서 명상을 한다면 다음 생에서 추구하게 될 세속적인 목적에 대한 환

나. 모든 존재에 대한 심오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중 세 번째 즉 모든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경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티베트에는 드롬이라는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드롬은 탐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탐 주위를 걸어 다니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은 일이다” 경전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드롬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수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롬은 생각에 의지한 수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생을 포기하고 수행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한 수행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을 속이기, 거짓말 등의 도덕적이지 못한 생활은 종교적 수행과 반대가 되며 두 가지는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수행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수행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여 정부를 꾸려 나가는 일, 경제적 척도를 향상시키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단계를 받아들이는 일 등을 잘 실천



과학의 불교
불교의 과학
양행진
삶에서 깨어나기

소크라테스는 현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지혜의 신인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탁의 결과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도시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신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였다.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나서 그는 그 신탁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훌륭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보다는 현명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을 찾아서 누가 가장 현명하냐고 물으면 두 말하고 인간이라고 대답할 것이 그렇다면 인간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게 만약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자각함으로써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듯이, 우리 인간은 불성을 자각함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왜 위대하다고 해야 하는가?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년 정도이고 그 땅위에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약 30억년 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물이 있을 뿐이다. 소편하우어가 말했듯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 만으로 삶을 영위하며 종을 번성시켜 왔다. 그들 중생에게 세계는 자신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잡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의지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감각은 밖으로 열려있어야만 하였다. 그래야만 먹고 먹는 것을 구분하는 데에 편리했

‘나’ 집착하는 무지는 윤회의 힘 “부단히 닦아야” 욕망 쫓으면 동물적 삶... ‘진리 거울’에 비춰보길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본성을 일으키는 배라고 생각하면 명상수행을 할 때 몸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광범하고 윤회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보면 단지 물질적이고 사회적이며 생물학적인 요구를 뒤쫓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신에 대해 표면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충족된다 해도 죽음의 문을 넘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정신적 특성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창조적이며 신비로운(매우 미세하여 쉽게 알기 어려운) 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

지닌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명상이 우리의 영혼이 지닌 고귀한 면에 스며들면 우리 자신과 우리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 신비하게 변화합니다. 악욕망의 법칙에 묶여 악순환을 거듭하며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욕망의 뒤만 쫓아다니는 어찌할 수 없는 동물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곤충과 구별되는, 영혼을 개발하는 능력과 정확하게 지각하는 특징이 인간에게 있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에서 끊임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 단계의 명상은 - 죽음과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명상 - 희망과 쾌락이 가진 덧없는 본성과 관련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늘 언제라도 죽음이 우리의 생을 빼앗아 갈 수

상은 깨어질 것입니다. 덧없는 것에 탐닉하지 않고 항상 해탈의 평온함에 머물기를 열망하는 관점에서 마음을 닦을 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의 해탈을 갈망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추진력이 됩니다. 우리는 윤회에 가장 깊숙하게 숨어 있는 힘이 ‘나’에 집착하는 무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 하려는 선천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각 대상과 저 깊이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자각함으로써 근거 없이 우리를 있게 하는 왜곡과 고통과 혼동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심오한 본질을 이해할 때, 마음이 선천적으로 거지로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왜곡을 극복할 수 있습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면 출가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어느 날 경전을 읽고 있는데 드롬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 습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지금 나는 명상을 하고 그것은 분명히 수행이다” 드롬은 명상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웃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불성을 자각한다는 것 맹목적 삶에서 절대자유의 세계로 전환

다. 왜 그러냐고 다시 물으면 인간은 언어나 도구 혹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며 그런 차이 때문에 인간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인간과 여타 생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하여 구분 지으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른 동물들이 위험 신호를 서로에게 전달한 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인간처럼 고도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에게 손과 지능이 진화를 거치면서 어느 수준 이상 발달되었기 때문이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지능이라는 능력이 특히 발달된 것 뿐이다. 그런 식으로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하늘을 날지 못하거나 새보다 열등하며, 물 속에서 빠르지 못하거나 물고기보다 열 등하다고 해야 할 지 모른다. 각각의 생물들이 저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키워 무어 진화해왔는데, 생물종의 우열을 지 능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잴다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정당화될 것 같지는 않다.

기 때문이다. 진화의 한 정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 어느 다른 생물종보다도 심한 탐욕을 가진 존재였을 뿐이다. 이 증생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우주적 사건이 바로 불성의 자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으므로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밖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감각이 안으로 모이고 상과 견해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면서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 깨달음의 소식을 전해들게 된다. 진화의 고리에서 나왔음에도 더 이상 맹목적 생의 의지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실로 30억년의 역사를 가진 맹목적 이고 증생적인 삶에서 깨어나는 일이다.(얼마전 나온 책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좋아 이 글의 제목으로 인용한다) 무기물에서 유기체가 생기고, 유기체에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의 한 가운데에서 생명을 뛰어 넘으면서도 생명을 버리지 않는 해탈의 언뜻이 피어나게 되었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명실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녜다비드**

전 화 : 551-8474 ~ 5
우체국 : 013805-0016528
국민은행 : 067-0170-091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성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일제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 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조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대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